

석유화학, 아시아 수출강화 총력전

일본, 기초원료 가격 상승으로 ... 나프타와의 가격 Spread 현저해져

올레핀(Olefin), BTX의 가격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이 아시아 수출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나프타(Naphtha) 가격이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가격차이가 최고수준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왕성한 수요가 코스트 증가 이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Nippon Petrochemicals(新日本石油化學), Maruzen Petrochemical(丸善石油化學) 등 올레핀, BTX 상업판매기업들이 아시아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Nippon Petrochemicals은 2005년 가을로 예정돼 있는 프로필렌(Propylene) 증설을 앞두고 시장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벤젠의 Spot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Maruzen Petrochemical은 에틸렌(Ethylene), 프로필렌의 2004년 공급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여서 Spot 시장에 내놓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에서는 2003년 말부터 나프타 가격이 상승해 수익을 크게 압박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도 있으나 올레핀, BTX 등 기초원료는 나프타 가격상승 이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 또 나프타 가격이 1월 후반부터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 에틸렌, 프로필렌과의 가격차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1월 중순 톤당 390달러에 달했던 나프타는 2월 2째주에 310달러 수준까지 안정된 반면, 나프타 가격이 390달러에 달했을 때 690달러를 나타냈던 에틸렌은 780달러 선으로, 640달러인 프로필렌은 700달러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국제시세 안정시기에 200달러 선을 유지했던 나프타와의 가격 Spread는 에틸렌이 470달러, 프로필렌이 380달러를 기록했다. BTX도 계속 가격이 상승해 벤젠은 미국 계약가격이 2월 594달러에 달했고, 아시아 Spot 가격도 550-56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Nippon Petrochemicals은 2005년 가을 Kawasaki 공장의 프로필렌 생산능력을 15만톤 증설할 계획이고 시장 확보 관점에서 1만-2만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벤젠은 한해 20만톤 미만의 수출분 이외에 1-3월 1만톤을 Spot 수출했다.

Maruzen Petrochemical은 에틸렌을 한해 10만톤, 프로필렌은 8만톤 수출하고 있는데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Chiba 공장의 가동도 에틸렌, 프로필렌 생산량이 최대가 되도록 수정하는 등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4/03/08>